

멈추기 어려운 '파국'의 행보



-사회: 모두 바쁘진 와중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본 시리즈를 마치면서 그동안 지면에 활성화된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각자 생각하시는 공황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현시 한국 경제상황에서의 공황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영: 저는 '공황'이 가치법



근대 경제학에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설명 불가능

〈김진영〉

최근에 관철되는 특수한 형태라고 보고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공황을 어떻게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론보다는 공황이 어떠한 현상으로 파악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두가지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형태'라는 것과 '생산력과 생산관계사이의 모순의 총물'이 그것입니다.

이중 가치법칙의 관철형태라는 것은 기존의 근대경제학적 접근 방법으로도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의 시각으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황은 현실 자본주의의 비판일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제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흔히 공황이라는 것을 파국적·결정적 측면이라고 파악하는데, 공황이란 호황의 극치에서 급전하는 하나의 국면입니다. 공황이후 나타나는 기압의 도산, 증권시장의 붕괴 등의 현상은 불황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채만수: 잘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상이한 산업순환의 면모를 가진다는

것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경제를 인간경제 생활형태의 최상의 것으로 내세우기에 산업순환을 인정하면서도 공황이라는 자신들의 약점을 언어적으로 피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40여년간 이런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경제가 논의되어 왔었으나 최근에는 한국경제를 공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자체를 사회경제학분야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의식에서 뒤떨어져 이론상·관념상의 오류가 많이 엮여있습니다. 최근의 논의중에서 공황이라는 현상들을 전체적,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일부에서 전형적인 공황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전형적인 공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과연 '전통적'이라는 것이 어떤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많은 경우 공황이 '고도의 추상화'

한국경제 진단을 위한 기획시리즈〈完〉 - 좌담

▲김진: 동감하며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황의 형태변화라는 문제의식자체가 막스자본론에서 의도했던 중요한 핵심적 논쟁자체를 회색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공황이 '고도의 추상적대상'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추상적대상인 공황을 언급한다는 것은 현실의 예측이 가능하며, 발상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론의 경직성에 대한 반성의 계기도 부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공황의 소멸에 관한 제의견은 19C에는 화폐공황이 선행되고, 그 여파가 산업공황을 불러

주기의 순환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고 봅니다. 곧 고전적 의미가 현실속에서 증명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재훈: 현재 경제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국면을 공황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공황의 지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선 공황이 자본주의의 체제 모순의 발현이기에 생산의 단위가 파괴되는 것, 즉 자본이 파괴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생산의 저하, 투자의 감소, 이윤의 저하 등도 평균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C 후반 이후 독점자본의 축적과 국가의 개입이 공황의 형태 변화를 불러온 것은 누구나 다 주장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황의 형태가 변했다 할지라도 본질이 관철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단지 각각의 국면에 따라 공황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태인: 저는 제생각보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황이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이 틀렸다는 점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 공황형태가 단계적으로 유형이 있다는 부분은 중요하게 인정

본 좌담은 이번 기획시리즈를 마치면서 그동안 지면에 활성화되었던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이에 대한 실천적침묵도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

▲일시: 3월26일 오전11시

▲장소: 본사 회의실

▲참석자:

김진영 (한국외대강사·경제학)

채만수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연구원)

정태인 (서울대 박사과정·경제학)

김재훈 (성균관대 강사·경제학)

▲사회: 오은희 (본보 기획부장)

▲기록·정리: 이수정 (기자)



한국자본주의, 국가개입 무용으로 생산공황 불가피 발현된 모순 상황 속 새 사회 건설 역량 요구돼

된 형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19C에도 공황의 형태는 판이하게 나타났는데 현시에도 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급격한 감소'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생산공황의 존재는 더욱더 강력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의 감퇴인데, 이것을 역시 구체적인 양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생산의 급격한 고양에서 급전하여 생산물이 떨어지는 것을 공황국면으로 파악하고 떨어진 상태의 지속이 침체 불황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산의 최대치에서 하락하는 것을 무조건 공황으로 본다면 공황은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굉장히 짧아지고 역사상의 빈도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공황국면은 생산의 급격한 고양에서 저하로 반전하여 저하가 지속되는 불황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반전부터 불황시기까지도 공황국면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 이론에서는 실천적침묵이 바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황의 현상들에 대한 논쟁들은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논쟁들 중 대부분은 추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의 규정 논쟁이었기에 적극 유형화해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적침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필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에 현시 나타나는 공황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 저는 통계적 검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시 기 자본주의의 통계를 살펴본다면, 허위작성과 모순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과 허위를 지적하지 않고 통계를 무

에서는 통계조작 등으로 논란이 심해왔으나 어떤 새로운 실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면서 기존의 통계수치에 무조건적 비판만 가한다면 이는 과학적인 연구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현실로 대적인 맑스 경제학을 관념화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김진: 이론적 측면의 추상성과 통계가 보여주는 구체성, 양면을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공황은 경험적 직감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어느정도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런 공황적 의미를 접근해 들어가며, 현시기의 한국 경제를 파악함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 사실 공황은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국면입니다. 저의

조건의론으로 인용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간의 정치경제연구성과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파악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 저는 정치경제학의 본래적인 의미가 기본 전제로 합의가 된다면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분석적인 통계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의 경제는 여러가지 수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직나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주관적인 관념으로부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급한 정치적·주제적 의식화의 고양 절실해

〈채만수〉



다. 근본적으로 부르조아 통제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으며 한국

기 한국 경제의 불황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 현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황은 분명히 자본주의의 체제자체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의 붕괴라는 측면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주관적·주제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시기를 우리나라사회를 살펴본다면 주제적 역량이나 의식정도는 굉장히 저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을 키우기까지 현시기의 악순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 자신의 주제적 정치적 의식화의 고양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지금 그럴 우린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적 역량이 홀로 고양될 수 없음을 생각해볼 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등의 주제적 역량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그 역량의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 불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황의 의미로 현 한국경제를 규정한다면 지금을 공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소폭의 소공황으로 인해 공황의 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 현재 경제 상황을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89년 소공황이후 회복되었다가 다시 공황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긴 기간중의 불규칙한 동요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럼 이전까지 현 한국 사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양상과 노동자계급의 대응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지요.

▲김재: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악화등의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지만, 그대로 정치적 투쟁과 의 연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황은 위기가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함과 동시에 기회라는 즉, 착취가 강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수도 있는, 양

면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투쟁은 모순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적 투쟁이 전개되어야하며, 단기적인 전략·전술적인 논리와 더불어 정치적 전술판단을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 한국의 경제는 노동파괴공급 상태입니다. 노동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상태에서 임금이 인상되긴했으나 실질적 임금인상의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자본은 불기인상의 책임을 임금인상으로 전가해서 노동운동을 거세게 탄압할 것이라 예상되는 데 노동계급은 이에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의 임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채: 현시기 모든 운동의 특징은 자연발생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가치생산물의 잉여분중 노동자의 몫을 늘리자는 이윤배분의 문제인데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은 가치법칙의 규정에서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 예전에는 공황 자본주의의 모순의 필연적발현이며 동시에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인 구조적모순이 발현되는 현상이라 해서 투쟁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었습니다.

현시기 문제점은 현실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퇴색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공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매우



현시기는 착취가 강화될수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수도 있어

〈김재훈〉

난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죠. 이후의 장기적 방안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투쟁을 강화시켜나아가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 이 자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리즈의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한국경제를 '공황'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은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실의 파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대졸 신입사원 모집

누가 우리경제를 살리니까?

밖에서벌어 안을 살찌우는 소명감을 지닌 인재들, 바로 젊은 그들입니다.

늘어나는 무역적자, 줄어드는 생산성... 우리모두가 힘써 키워온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이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번영을 위해 수출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밖에서벌어 안을 살찌우는 경영방침을 추구해온 現代. 젊은 인재들이여, 저희 現代의 소명감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미래의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총 950명

모집 부문	인원	응시 자격
이공계 기계공학·전기공학 건축공학·토목공학 산업공학·금속공학 화학공학·전자공학 전산학·수학 물리학	700명	●정규 4년제대학 92년 8월 졸업예정자 (단, 기졸업자는 92년도 2학기 전역자 및 7월말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함) ●1964년 1월 1일 (석사는 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250명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당그를 소정양식) 2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2년 4월 6일 (월) ~ 4월 15일 (수)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공휴일도 접수함)
나) 장소: 현대인력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별관 (비원영)
지하 3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전화) 746-3232

5. 기타

가) 육·해·공군 장교 출신자는 우대함
나)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2년 4월

現代 人力管理委員會